

7월의 계란전망

강재명
본회 지도조사부 과장

하락세가 7월 내내 지속되면서 8월들어 보합세 예상

□ 막연한 호황이 잔뜩 기대되었으나 여름철 비수기의 벽을 무너뜨리지 못한 마의 7월임에 틀림없다. 고시가격과 현장시세와의 폭이 커지면서도 현실화되지 못한 것이 생산자에게 심각함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못한 것 같다. 이같은 결과가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으면서 심각함이 더해지고 생산자 스스로 고시가격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결과로 계란값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향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하절기에 대비해 나가는 지혜를 찾아야 되겠고 생산감축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때라 생각된다.

□ 5월중 배합사료 생산실적은 초생추사료가 5,866 M/T으로 전년동월, 전월에 비해 5.6%, 13.

8% 각각 증가하였다. 이는 봄입추 이후의 병아리 가격이 계속 강세가 지속되면서 3, 4월이후의 병아리 생산이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산란기사료는 125,296 M/T으로 전년동월, 전월에 비해 0.8%, 2.3%의 근소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병아리생산실적 또한 5월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는 예년과는 달리 금년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병아리시세와 생산증가는 정비례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최근의 입추열기로 보아 이러한 추세가 계속 되어질 전망이다.

□ 7월의 계란값은 예년과 달리 하절기 난가하락이 1개월쯤 늦게 나타난점을 볼때 하절기 낙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앞선 자료를 보더라도 하절기에 접어들면서 생산량의 증가세를 보인점으로 미뤄 생산과잉을 예상할 수 있고 특히 6월중 장마기간 중 생산성이 좋아졌음을 예상할 수 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중순 이후의 계란값은 급락현상을 보이면서 40원대의 대란시세가 형성되면서 어려운 시기가 될 것 같다.

또한 5월 초생추사료의 급증과 7월 비입추시준임에도 불구하고 병아리가 부족한 느낌을 줄 정도여서 입추하는 마음의 자세에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난가하락이 지속되면 환우 등의 방법으로 생산량을 줄이려는 경향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가급적 환우보다는 노계도태와 함께 신계입식으로 수수확보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으로 여겨진다. 하절기 난가회복에 대한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 종계 및 실용계 병아리 입식수수

(단위: 천수)

구분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총 계	88	52.0	21.5	16.1	27.9	65.6	38.4	8.3	41.9	2.9	24.0	49.4	55.6	403.6
	89	84.9	40.1	23.5	41.6	56.1	28.4	24.0	14.8	67.5	45.3	40.6	33.2	499.9
	90	25.8	42.2	32.6	20.1	62.4								
실용계	88	1,742	2,205	2,428	2,365	1,790	1,283	1,335	1,420	1,695	1,743	1,402	1,185	20,593
	89	1,355	2,569	2,683	2,562	2,352	1,925	2,237	2,197	1,959	1,806	1,904	25,969	
	90	1,970	1,959	2,302	2,117	2,229								

그림 1. 대란고시가격(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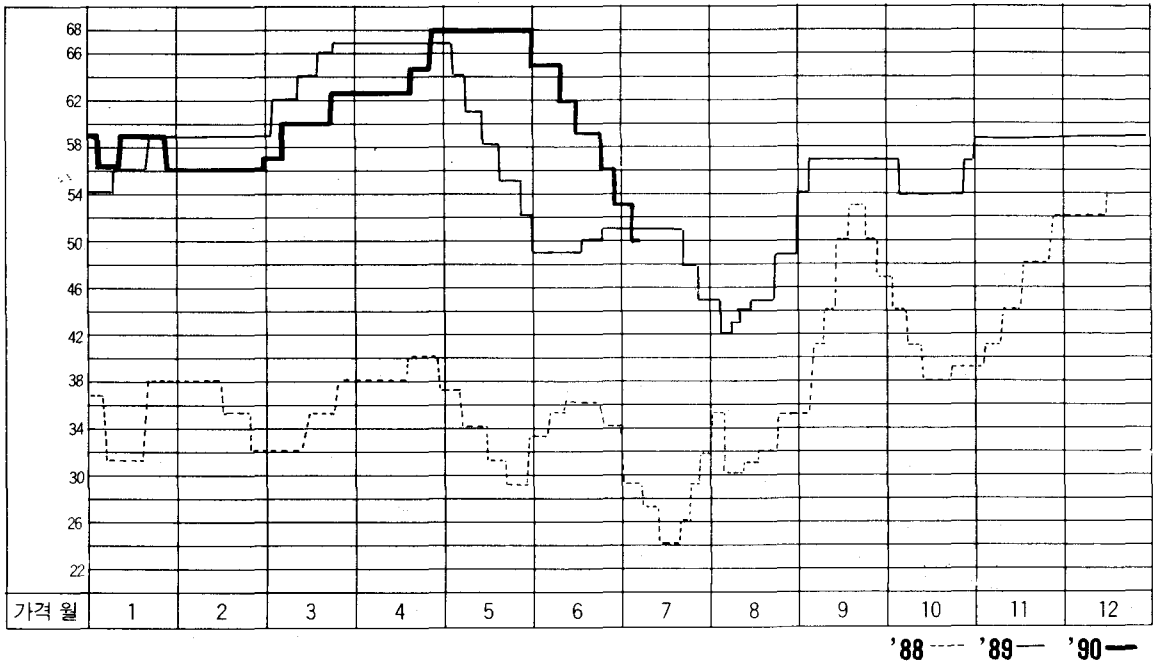


그림 2. 배합사료 생산실적

